

천주교 춘천교구

춘 교 : 제2018-0052호(사무처)

시행일자 : 2018. 7. 24.

수 신 : 본당 신부님

제 목 : 성체 훼손 사건과 관련한 전 신자
공동 보속에 대한 협조 요청

주임신부		사목회장	
보좌신부		위원장	
분원장수녀		위원장	
담당수녀		사 무 장	
접수일자		처리결과	

+ 사랑으로 하나 되어

신앙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2018년 7월 12일 공문(춘교18-0051호)으로 알려 드린 바와 같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체를 훼손하고 모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성체 신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님과 상임위원 주교님들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끼시며, 이번 성체 훼손과 모독으로 인하여 상처받으신 하느님께 모든 천주교 신자들이 가능하다면 같은 날 공동으로 보속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공동 보속 행위는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될 수도 있는 성체 훼손과 모독 행위에 대한 단순한 보속 행위를 넘어, 우리 시대의 천주교 신자들이 겪고 있는 신앙 가치관의 혼란에 대해 반성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에 대한 흠숭과 공경 신심 부재의 현실에 대한 보속이 될 것입니다.

중협주 제2018-382호에 공문에 의거하여 춘천교구 각 본당에서는 주교님의 뜻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8년 8월 3일(금), 전 신자들이 한 끼 단식과 금육을 실천하며, 개별적으로 성체 조배의 시간을 갖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본당에서는 성체 현시와 함께 성시간을 갖고 성체 공경 신심을 특별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일이 급박한 만큼 이와 같은 사실을 신자들에게 속히 알려주시고 각 본당 별로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춘천교구 사무처장 김 광 근 신부

